제15차 吉林市朝鮮族 民俗文化 祝祭 開催

5.29~30일 제15회 길림시조선족 민속문화절이 북산공원 인민광장에서 거행되었다.

길림시 조선족 민속 문화절은 길림시 인민정부가 주관 길림시 문화신국, 길림시민족 사무위원회가 후원하여 길림시 조선족 군중 예술관조직 개전의 시금 대형광장활동, 공연, 전시, 경기, 관상오락, 취미, 미식등 일체의 군중성 민속문화가 성대히 모여 중국예술문화 연회 평가가 최고 민속 개치 최고 민속문화예술활동이며 길림시 중절광장 문화활동이 되었다.

동시에 또한 중국조선족 최고 영향력있는 문화활동으로서 2013 문화부선발 제 十차 중국 예술절에서 '군문지성의 영예를 수령했다. 문화절기면 길림지구 조선속 우수 문예절 순서로 연극, 한국상품전시 등의 민속활동 길림지구 조선족 중소학교 유치원 조선족 노년협회 조선족 부녀협회, 조선족 체육운동협회시 조선족 배구협회등 조선족 단위구사회단체등 모두 70개 대표단과 3000이 넘는 인원과 운동원이 참가하였다. 길림시 조선족 민속문화제는 통상 매년 단오절기에 거행된다. 중국 공동의 전통절일의 우수한 전통문화로서 민속문화절 매번 길림지구의 조선족 동포모두 민족복장을 갖추고 전통식품을 지니며 남녀노소 우정의 마음으로 흥겹게 현장에 와 춤을추며 각종활동에 참가한다.

매년 민속 문화절 마다 조선족 동포의 민족문화활동이 성대히 열리고 조선족군중의 희노애락이 깊이 담겨 조선족 동포 스스로 '오랜 백성의 자기축제'라고 칭한다 금년 민속문화절은 2016 중국길림 북산 비물질문화유산절기간에 성대히 열려 많은 대외관람객들이 와서 관람했으며 민속문화절의 광화선전에 촉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족-길림성은 조선족의 주요 거주지이다. 조선족은 자체의 언어와 문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갖은 고생을 이겨내며 굳세고 용감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등 전쟁을 겪으면서 중화민족의 해방과 신중국의 설립 및 부강을 이루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나라에 힘껏 기어하였다. 조선족은 흰색옷을 선호하고 예의범절을 중시하며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춤과 노래에 능한 것이 특징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9월 3일 설립되었고 조선족은 '가무의 고향', '축구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5月29日、30日,第十五届吉林市朝鲜族民俗文化节在北山公园人民广场举行。吉林市朝鲜族民俗文化节是由吉林市人民政府主办,吉林市文广新局、吉林市民族事务委员会承办,吉林市朝鲜族群众艺术馆组织开展的市级大型广场活动。旨在丰富朝鲜族人民群众文化生活,展示吉林市少数民族昂扬向上的精神风貌,推动吉林市民族团结进步,构建吉林市公共文化服务示范区建设。

吉林市朝鲜族民俗文化节是集展演、展示、竞技、比赛、观赏、娱乐、消闲、美食于一体的群众性节庆民俗文化盛会,被中国节庆文化年会评为最具民俗价值、最具传承意义的民俗文化节庆活动,已成为吉林市重点广场文化活动,同时也是中国朝鲜族最具影响力的文化活动之一。2013该项目获文化部颁发的第十届中国艺术节 群星奖 项目类 群文之星 荣誉奖项。

文化节期间,还举办了吉林地区朝鲜族优秀文艺节目展演,文体比赛、韩国商品展示等民俗活动。来自吉林地区的朝鲜族中小学校、幼儿园、朝鲜族老年协会、朝鲜族妇女协会、以及市朝鲜族体育运动协会、市朝鲜族排球协会等朝鲜族单位及社会团体等共70个代表队3000多名演员和运动员参加了上述活动。

吉林市朝鲜族民俗文化节通常在每年端午节期间举行,藉中华民族共同的传统节日之际弘扬优秀的传统文化。每逢民俗文化节,来自吉林地区的朝鲜族同胞都会身着艳丽的民族服装,带上自制的民族食品,扶老携幼,兴高采烈地汇聚到现场,踊跃参加各种活动。每年的民俗文化节都是朝鲜族同胞的一次民族文化活动盛会,深受广大朝鲜族群众的喜爱,被朝鲜族同胞称为 老百姓自己的节日 。

今年民俗文化节正值2016中国.吉林（北山）非物质文化遗产节隆重召开,众多海内外游客前来观看,对民俗文化节的推广和宣传起到了促进作用。

(원내)權 伍 扱 지린시 신임 종친회장

노쇼(No-Show)

명예총재 **권 이 혁**

노쇼(No-Show)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웃고 지나갈 정도를 넘고 있다. 원래 '노쇼'란 말은 항송회사의 업무성 용어였다. 근래에는 호텔이나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변했다. 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예약취소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노쇼(No-Show)의 %는 노쇼(No-Show)의 수와 예약된 고객의 수의 비(比)에 100을 곱한 숫자다

노쇼(No-Show)는 우리말로 '예약부도'라고 번역된다. 예약시간에 임박해 취소나 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노쇼(No-Show)에서 제외된다. 앞에서 쓴바와 같이 원래는 항공업계의 용어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식당·병원·미용실 등 서비스 업계 전반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다.

노쇼(No-Show)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액이 최근에는 1년에 4조5000억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예약을 받고 모든 준비를 다해 놓은 식당에서 예약된 손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준비했던 음식물은 어찌 되겠느냐.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생각이 든다.

노쇼(No-Show)는 민도(民度)나 시민인식의 성숙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들은 선진국 문 앞에 까지 왔다고 하지만 노쇼(No-Show), 즉 '예약 부도율'이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3~4배가 된다고 한다. '예약 부도율'이 식당 20%, 개인병원 18%, 미용실 15% 고속버스 12%, 소규모 공연장 10.1%하고 하니 선진국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나는 '노쇼(No-Show)'를 민도의 한 단면으로 본다. 민도가 선진국 조건의 한 기준이 된다는데 관하여는 더 논급할 여지가 없다. 전에도 썼지만 민도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비례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선진국'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시민의식이 '양심'과 비례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주위에서는 매일같이 양심을 어기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 양심과 거리가 있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자랑하게될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민이 되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노쇼(No-Show)와 관련되는 문제의 하나가 '오버부킹'이다. '예약부도'를 감안해 '오버부킹'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약속에 따라 병원에 갔지만 몇 시간씩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도 적지 않게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예약을 해놓고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환자가 있는 것을 감안해 약20%쯤 예약을 초과해서 받는 소위 '오버부킹'이 20%정도나 된다고 한다. 병원이나 식당, 미용실 등이 비슷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예약부도'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오버부킹'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예약부도'나 '오버부킹'이 모두 '양심'의 문제다. 국민들의 양심이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글이나 소문 또는 이야기가 유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은 기대하기 힘들고 우리들은 선진국민이라는 말을 듣기 힘들다. 그러나 나는 우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당하게 선진국민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통계 숫자는 2015년 10월 하순 조선일보가 연속 보도한 노쇼(No-Show)에서 인용했다.)

2015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는 42만개 음식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외식업 중앙회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예약문화 개선을 위해 "노쇼(No-Show)는 노(No)! 예약은 약속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스티커와 냅킨을 각각 10만장씩 제작해 서울지역 음식점에 12월말 까지 배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名家의 조건, "韓國의 名門士族, 安東權氏" 특별전시

대전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씨로 조선시대 다수의 명현들을 배출한 안동권씨와 그 문중들의 역사와 문화, 명가로서의 품격 등을 조명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사회적 신분인 조선시대 양반과 명문가의 의미를 과거(科擧),학문(學文),절행(節行),혼맥(婚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통시대와 근현대를 잇는 명가의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가제) 명가의 조건, "한국의 명문사족, 안동권씨"라는 주제의 시를 대전역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2016. 10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대전역사박물관은 대전직할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공포(제2020호)를 근거로 1991. 12월 대전직할시향토사료관(대전역사박물관 전신) 개관하여 지금까지 대전을 중심으로 과거와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기획 및 상설전시관으로서 전통시대와 근현대를 잇는 명가의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이미 2015년09월22 ~ 2016년02월28일에 걸쳐 2015 특별전 '한국의 명가, 光山金氏'를 1회로 인기리에 연장전시한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우리 안동권씨를 특별조명하게 된다.

고윤수 학예사 연락처:042)270-8611, 대전역사박물관대표전화 (042) 270-8600~12

구성	주제	내용	주요유물	기타
도입	기획의도	· 조선시대 양반의 개념과 명가의 조건		· intro [영상]
	안동권씨 개괄	· 안동권씨의 기원와 분파 · 안동권씨 문중의 전국 현황 (지역별 입향과 세거)	· 안동부 /안동읍 고지도 ·〈성화안동권씨보〉등 족보류 ·〈릉동실기〉	
전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명가의 맥	고려의 권문세족에서 조선의 사대부로	·〈국조방목〉 ·〈국조문과성보〉 · 주요 인물들의 시권과 교지 등	
		· 고려조 권보의 '當代九封君' · 고려조부터 과거를 통한 정계 진출 · 안동권씨 주요 인물의 과거 급제 현황 (문과방목 분석) · 주요 가문들의 사환가로의 성장		
		조선의 초대 문형, 양촌 권근	·〈양촌집〉 ·〈입학도설〉 ·〈응제시주〉 ·〈천상열차분야지도〉탁본	
		· 조선왕조의 개국공신 권근 · 초기 주자학의 수용자로 조선 건국에 사상적 명분을 제공 · 경학 외, 사장과 천문학 등에 뛰어난 당대 최고의 지식인		
	안동권씨의 대전 입향과 재지사족으로서의 성장	안동권씨의 대전 입향과 그 배경	·〈충주박씨내외손보〉/유형46 · 분재기 등 상속관련 고문서 (만회/ 탄옹 분재기) ※ 대전 + 충정공파 '권벌'가 고문서 집성	
		· 대전의 세거성씨 충주박씨와 안동권씨와의 혼인 · 조선시대 상속제도와 사족의 경제적 기반		
		대전에 뿌리 내린 안동권씨 명가 : 만회 · 탄옹가	·〈국조오례의〉 및 기해예송 관련 자료(상소 등) · 탄옹, 만회집 및 책판/유형17 · 혼인/학문적 교류의 대상이 된 주요 인물과 관련된 간찰, 문집 초상 등 (동춘, 우암, 미수, 백호 등)	·[영상] 도산서원/문화재자료3
		· 사환가로서의 성장 (권령-권홍-권덕유-권득기) · 만화·탄옹 예학자로서의 면모 · 서인, 남인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맥의 구축		
		대전에 꽃핀 안동권씨 명가 : 유회당가	· 무수동도/유형44 · 유회당권이진가유물/자료17 · 유회당집	
		· 기호남인으로의 분류 (남인과의 혼인과 학문적 교류) · 유회당의 실무형 관료서의 면모		
	조선시대 재지사족과 향촌자치	안동 닭실마을과 대전 무수동	※ 안동과 대전의 안동권씨 집성촌을 비교 제시 · 무수동 동계첩 (민속문화재 3호) · 회덕향안/ 향약/ 청금록 · 무수동도 · 안동권씨 정려(효자, 열부 등)	·[영상] 닭실마을 (한국의 명당) ·[영상]무 수동 (유회당 종가, 삼근정사, 기궁재 등)
		· 안동 닭실마을의 유래와 역사 (충정공파의 안동 향촌자치와 개간사업 등) · 타 재지사족들과의 네트워크 및 향촌자치 활동 · 향촌교화		
마무리	전통과 근대 (명가의 의미)	·조선시대 명가의 현대적 변용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의 공헌) ·근대 이후 안동권씨 주요 인물들 (교육활동, 정치, 독립운동 등)	· 독립운동 3대 : 권인규, 권종해, 권기수 · 대전충남의 안동권씨 독립운동가들 (권용두 외) · 안동권씨 명사들	

민족의 시원을 노래한 우리민요 〈도라지타령〉

在日族親 **權 泰 億** 역사민속 연구가

경기민요, 북한 황해도 은율지방

우리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를 손꼽으라면 제일 먼저 '아리랑'을 들수있는데 '아리랑'은 이미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있으며 그 선율의 아름다움은 언어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있다고 한다. 지구촌의 수많은 음악가들이 '아리랑'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國歌로도 거론될 정도로 '아리랑'은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이다. 그 다음은 어떤곡을 꼽을 수 있을까?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재일 민속학자 권태억(權泰億, 추밀공33세손,재일민속연구가)족친은 '아리랑' 못지않은 민족의 대표곡이 '도라지'라고 역설 한다

민요 '도라지'는 옛날에 황해도 은율지방에서 많이 불리던 곡으로 산염불조(山念佛調) 비슷하게 퍽 느리게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부르는 '도라지타령'은 '아리랑'·'이팔청춘가'와 마찬가지로 신민요에 속한다. 노랫말의 처음은 다음과 같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로 반실만 되노나
(후렴) 에헤요 에헤요 에헤애야
어여라 난다 지화자 좋다
저기 저 산 밑에 도라지가 한들 한들"

매절 뒤에 후렴을 가진 8절의 유절형식(有節形式)으로 되어 있고, 선율은 편의상 서양음악의 계이름으로 표시한다면 '솔·라·도·레·미'의 5음음계로 되어 있다. 장단은 세마치장단에 맞추나 가끔 중모리장단을 섞어 친다.

(한민족백과사전)

족친의 연구에 의하면 '도라지'는 '돌아온 아지'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기 손자나 핏줄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백도라지'는 하늘로부터 받은 천진의 깨끗함-밝은 애기- '심심산천'은 복희, 신농씨로 비롯된 한반도의 토착민의 始元-'소도'를 상징적으로 읊음. '한 두 뿌리만 캐어도' -음양을 상징(한-1, 두-2) 웅녀가 사람이 되어 낳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등극하는 뜻, '대바구니' -세상, 우주, 어머니의 모태, '반실만 되노나.'- 가득 차는구나.-자손번창에 대한 축원을 담음.

(권태억)

앞서 '아리랑'이 님을 떠나보내는 한의 정서를 담고 있다면 '도라지'는 始元의 환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더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老민속학자가 전해주는 古來민요 '도라지'에 대한 해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홍보부)

대종원 빙자 종사(宗史)관련 통사보감 불법판매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지난 2월15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권문(權門)족친을 대상으로 대종원을 빙자하여 뿌리찾기 종헌(책명:통사보감)책자를 대종원에서 판매를 하는 것처럼 불법홍보를 자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일원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해당불법업체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전국의 권문족친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대종원에서는 종사에 관련된 문헌, 족보 등의 책자를 판매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사례가 있을시 바로 대종원에 문의하시고 증거가 있을시 사직당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촉행위 :** 우선 전화로 서울 안동권씨 대종원혹은 중앙종친회 사무실이라고 접근하여 "뿌리찾기책자(통사보감)" 등을 부대사업일환으로 판매.
2. **해당 업체주소 :** 광진구 천호대로 107길 36 전화 (02)3409-2124
대종원 조치 : 위법피해 확인 등 법적조치 진행중

안동권씨 대종원 사무처